

나주 잠사, 지역 문화예술 확산 역할 톡톡

나빌레라 문화센터로 재탄생 후 다양한 강연·전시·공연 잇따라 잠사 기숙사 건물 리모델링 예술인 레지던스 활용 추진

하얀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뿜던 나주 잠사(蠶絲)가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창작, 확산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빌레라 문화센터로 재탄생한 뒤 강연, 전시, 공연 등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예술인 레지던스 공간을 마련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나서면서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옛 나주잠사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예술인 레지던스 공간으로 활용키로 하고 관련 규칙을 마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옛 나주잠사가 지난 2017년 '나빌레라 문화센터(이하 나나센터)'로 바뀌었지만 기숙사 건물의 경우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나주시는 애초 게스트하우스로 추진하려던 방침 대신, 나빌레라 문화센터의 역할을 고려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제공키로 결정했다.

나주시는 다음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낸 뒤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을 선정, 레지던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들 예술인들에게 공공요금과 입주기간 내 일정한 문화예술 활동비를 지급키로 했다.



나빌레라 문화센터 전경. 나주시는 최근 나빌레라 문화센터 뒤쪽 옛 나주잠사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나주시 제공)

나나센터는 일제강점기 강제수탈 등 지역민의 아픔이 서린 폐건물을 리모델링, 지역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화센터로 탈바꿈한 뒤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판이 되기 위한 취지로 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 미디어 아트 전시 등을 마련, 선보였다.

나주시는 여기에 예술인들의 위한 창작

공간까지 마련, 본격적인 지역 문화예술을 확산하는 본격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나주시 문화예술과 강숙희 팀장은 "나빌레라 문화센터 내 예술인 레지던스가 지역 문화 예술을 확산하면서 문화도시의 생명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57억원을 투입, 지난 2017년 지하 1층-지상 4층(대지 5117㎡) 규모의 나나센터를 준공했다.

센터명은 시인 조지훈의 '승무'에서 따왔다.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어 완전한 모습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형상화한 말로, 폐건물이 나주잠사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공간으로 성장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시는 최근 화동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 화동마을 '제1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주민 등 참석 현판식

나주 다시면 죽산리 화동마을이 나주 지역의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됐다.

나주시는 최근 화동마을에서 마을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개최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에 친화적인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인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가족 뿐 아니라 치매 환자를 마을이 돌보는 만큼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웃이 함께 고민하게 된다는 점에서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화동마을의 경우 다시면 치매등록환자의 40%에 해당하는 16명이 거주, 치매사업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 '나주시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

화동마을 이장은 "모든 치매환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선구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향후 5년간 전남광역치매센터, 나주시치매안심센터 등과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 초기·경증·중증환자별 맞춤형 교육·치료 프로그램과 환자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자조모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치매극복권 기대회, 치매극복선도학교 등 지역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면서 환자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는데 힘쓰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 등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나주시민들에게 책 1만권 생겼다 한국문화예술위서 기증

나주시민들에게 책 1만권이 생겼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13일 문학나눔도서 보급사업에 따라 '도서 1만권'을 기증했다.

한국문화예술위는 문학나눔도서 보급사업을 통해 매년 500종의 우수문학 도서를 선정, 전국 기관 3200여개에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도서는 지난해 출간된 시·소설, 아동·청소년, 수필·평론·희곡 등 문학분야 신간 도서로, 시는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65개소에 배부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은 이날 기증식에서 "도서 기증을 통해 지역 사회 상생문화를 정착시키고 아름다운 독서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인규 나주시장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13일 나주시를 찾아 문학나눔도서 보급사업에 따라 '도서 1만권'을 기증했다. (나주시 제공)

과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 걸음 더 상생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수여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No Bullying, Yes Bling!

제8회

청소년축제

2019. 08. 17(토) 10:00 ~ 19:00

광주 동구 금남로 공원

대학선택을 위한 주요 대학 입시홍보관 / 진로 탐색 및 적성 상담 / 학교폭력 상담
신나는 체험활동관 / 대학생 인기 댄스, 밴드 공연 / 경품 이벤트

문의전화_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55 / 010.7174.1257
자세한 사항은 NAVER 카페 http://cafe.naver.com/youngkwangju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교육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동광대학교

남평읍 흙·짱 주정차 정착 고심...OX전광판 설치·안내문 배포

나주시가 남평읍 관내 주요 도로 구간에서 추진중인 '흙·짱 주정차 제도' 정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행 2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주민 참여도가 낮아 이 대 교통이 정체되면서 주민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흙·짱 주정차는 도로변에 격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로, 나주시는 남평읍 '남평 왕손짜장 앞-남평주유소(360m)'와 '남평지구대앞-현대오일뱅크(150m)'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나주시는 이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6월부터 집중적으로 시

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참여도가 낮아 도로 양쪽으로 주정차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이중 주차를 하거나 아예 하루 종일 주차해놓고 가는 시민들도 많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나주시는 제도 시행 전 안내 플래카드를 걸고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안내했다는 입장이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나주시는 남평 5일장에서 흙·짱 안내문을 배포하고 남평 지역상가 및 주

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속 구간에 'OX 전광판'을 설치·운영하고 교통지도요원을 배치해 안내키로 했다. 공용 주차장 조성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성 확보와 편의 개선에 중점을 둔 교통 시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나주시, 지역 특화작물 '다도 마늘' 집중 육성

나주시가 지역별 특화작물인 '다도 마늘' 집중 육성에 나섰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 남평농협 다도지점에서 농업인 20여명을 대상으로 다도지역 특화작물인 '명품 마늘' 재배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했다.

다도지역의 경우 토양의 물 빠짐이 좋고

산간지역 기후로 마늘 재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춰 맛과 향이 좋은 마늘 산지로 꼽힌다.

하지만 마늘 생산량이 적고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보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배·생산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마

늘 무병종주 조적배양, 종구관리 중요성, 병해충 방지, 영농시기별 재배·관리 방법 등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전문 기술을 전수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향후 판매 마케팅을 위한 기술경영교육, 농가별 소득분석 및 평가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명품 다도 마늘 육성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